

유령선

먼 바다에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먹빛이 도는 남색의 바다가 광활히 펼쳐지는 이 주변은 북극과 가까워서 언제나 추웠습니다.

빛나는 것은 점점 해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무엇인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빙산이었습니다.

빙산은 아주 크고 뾰족한 산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다 속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빙산은 이런 수정 같은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류에 밀려 떠내려왔습니다.

이 주변의 바다에서는 매일같이 빙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커다란 덩어리가 유유히 목적도 없이 떠다녔습니다. 저 멀리까지 그 빛나는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쓸쓸한 저녁 해가 구름 사이로 그 빙산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은 저 멀리 멀어져 갈 때까지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동자에도 비쳤습니다.

또 날은 빙산이 마치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얼음배처럼 무서운 속도로 눈앞을 가로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얗고 빛나는 얼음 위에는 살아 있는 것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빙산이 바닷가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검고 작은 것이 얼음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새일까?”

“새일 리가. 바다코끼리나 물개겠지.”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보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곰은 어떻게든 육지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새하얗게 얼었을 때 곰이 빙산 위로 놀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빙산이 움직이며 육지와 떨어져서,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곰이 육지로 올라오면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이, 모두 조심해, 곰을 여기로 건너오게 하면 안 돼.” 모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과 창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빙산은 육지로 다가오지 않고 다시 먼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모두는 곰이 건너오지 못해서 안심했지만, 그 곰이 이제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북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빙산도 떠내려오지 않게 되어 바다가 잔잔하니까 낚시하러 가자”며, 어느 날 세 명의 어부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셋은 바다에 있는 한 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섬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섬에는 작은 만이 있어 물고기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때에 맞춰 이 섬을 들러서 낚시를 했습니다. 많이 잡힐 때는 놀랄 정도로 잡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셋이 만으로 배를 몰고 가서 보니, 물고기가 많이 있는 김새가 보였습니다.

“이건 잡힌다.”

“잡았어!”

셋은 열심히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니 과연 이제껏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이 잡혔습니다. 이걸 다 배로 올리기에는 앞으로도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니, 잡은 물고기를 섬의 해변으로 옮겨 놓고, 돌아갈 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섬에 남았습니다. 둘이 밤에 돌아올 때 섬에서 불을 지펴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을이라는 남자만이 아무도 없는 섬에 남아, 갑과 병의 두 명이 우렁찬 고함을 지르며 만을 넘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일찍 돌아오게.” 을은 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응, 자네가 외로워하니까 일찍 끝내고 돌아오지…”라고 두 명은 웃으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을이 배를 배웅하고 있자니 둘은 먹빛이 도는 남색 바다 속에 숨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닥을 마룻바닥처럼 생각해 온 사람들이니 이런 거친 바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 못하게 돌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을은 바다에 나간 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어찌하든 무사히 일찍 이 섬으로 돌아오면 돼.” 을은 기도하면서 불을 지펴 어두운 밤을 뚫고 올 흐름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비바람이 내리치기 시작해 모처럼 피운 불이 얼마 안 가 꺼졌습니다. 그래도 을은 열심히 다시 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 도망친 걸까? 이렇게 넓디넓은 바다에 갈 곳도 없으면서… 침몰해 버린 건 아닐까?”

이제 을은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밤을 쌌습니다. 바라볼수록 넓은 하늘이 광대하게 펼쳐지고, 파도는 크게 울렁치고 있었습니다. 배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을은 혼자서 작은 무인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 서서 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폭풍으로 난파되었는지, 배는 날이 지기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을은 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해변에 서서 주옥 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리운 친구들이 탄 배가 파도를 가르며 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갑도 병도 무사히 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이.” 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파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도 빨갛게 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아, 그리웠던 갑과 병이다! 잘도 죽지 않고 돌아와 줬구나.” 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그 배가 바로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어이.” 을은 또다시 두 손을 올려 소리쳤습니다.

갑과 병 둘도 대답을 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도 없이 배를 저어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한 순간, 그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을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선이다!”

실망한 을은 모래밭에 몸을 던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친 머리속에 이런저런 환영을 떠올렸습니다. 밤새도록 가위에 눌리며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눈에는 핏기가 솟고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로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을이 얼굴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니 틀림없이 그리웠던 그 배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제 본 것과 같은……유령선의……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놀람과 기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다음 순간에는 기분이 나빠서 몸이 부들거렸습니다.

“이자식, 나까지 죽일 셈인가?” 을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파도를 가르며 점점 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을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령선이 아니었는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해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이 육지에 뛰어올랐습니다.

“어이, 자네 미쳤나?” 라며 둘은 미쳐 날뛰는 을을 쓰러뜨렸습니다.

을은 아주 미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두 사람이 탄 배는 폭풍에 밀려 건너편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기다린 두 사람은 친구를 마중하러 섬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쳐버린 친구를 배에 태워 건너편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불쌍한 친구를 잘 돌봐 줬습니다. 그 덕에 읊은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침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북쪽의 항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인의 작은 섬은 아직도 멱빛이 도는 남색 파도 사이에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원문: 小川未明 「幽靈船」 (1924)

출처: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

이 작품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작품으로, 원문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